



순창군이 올해 모두 220ha에 12억여원을 투자해 군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조림사업 추진에 나선다.

순창군, 조림사업 추진나서

12억여원 투자... 편백나무·상수리 나무·밀원수 식재 등 소득기반 만들기

순창군이 올해 모두 220ha에 12억여원을 투자해 군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조림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이 올해 추진하는 조림사업의 핵심은 경제성 있는 숲을 통해 주민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종 선택에도 신중을 기했다.

군은 우선 최근 관광자원과 건축자재로 인기가 높은 편백나무를 집중 식재한다.

올해 식재할 편백나무는 총 35만여 그루다. 생장이 빠르고 나무는 물론 열매도 이용할 수 있는 상수리 나무

도 1만 5천 그루를 심는다. 또 최근 양봉과 한봉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밀원수도 5만주 정도를 식재해 양·한봉농가의 소득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순창군은 지리적 특성상 임야가 68%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숲을 이용한 경제사업 추진 때 농의소득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미 지난해에도 235ha 산림에 조림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춘기 조림사업은 오는 20일경 시작한다.

조림사업 이외에도 군은 주민들이 숲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

역 특성에 맞는 임산물 소득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중국 수출길에도 오르고 있는 순창밤 육성을 위해서 밤 전용 비료를 지원해 대표 임산물로 육성할 계획이다. 두릅, 울, 감 등 소득작물 식재도 지원한다. 표고자목 및 톨밭배지도 지원해 숲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임산물 포장재 사업과 저온저장고 등 유통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올해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에는 4억 6천여만원이 투자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 관촌 사선대 봄맞이 '새단장'

벚꽃나무·경관터널·조각공원 등 환경정리 실시

네 명의 신선이 놀던 곳이라 전해질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국민관광지 관촌 사선대 봄맞이 새단장에 한창이다.

임실군은 내방객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목단(모란) 36종 130주를 식재하고 소나무, 느티나무, 벚꽃나무 등 조경수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관광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 1개소를 자연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명품화장실로 보수하고 1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

이다.

지난해 능소화, 조롱박 등 5종의 절기식물을 아치형으로 심어 포토존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경관터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40여개의 작품이 전시된 조각공원 환경정리도 실시했다.

지난 1985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사선대는 섬진강 상류인 오원천과 기암절벽, 수풀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넓은 잔디밭, 체육시설, 분수대를 비

롯해 어린이 체험 장소로 각광 받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위치해 사시사철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다.

특히 나무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올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사계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푸른 잔디밭과 형형색색의 꽃을 비롯해 편의시설이 완비된 사선대는 봄맞이 나들이 장소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민주화 위해 희생한 열사의 뜻 계승

남원시, 김주열 열사 추모식 열어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김주열 열사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계승하고 김열사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이 14일 남원시 금지면 웅정리 추모각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이용호 국회의원, 이석보 남원시의회의장, (사)3·15의거열사마산 김주열기념사업회 정기식회장, 남원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나덕주회장 및 회원, 기관단체, 유족,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하신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추모행사는 제함과 원불교 남원교당의 천도제, 추모식,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남원시는 고 김주열 열사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6년부터 29억 5천만원을 들여 부지 3만1,760㎡에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2016년 12월에 마무리했다.

추모공원은 김 열사의 희생정신과 4·19혁명 추모관, 기념관, 방문객을 위한 광장, 녹지공원, 정자, 화장실, 연못,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 현장의정활동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고, 그 답 역시 현장에 있다.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가 막바지로 회기 중 논의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및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답사에 나섰다.

이번 제213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사업은 단연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사업'이었다.

양 상임위원회 모두 현지답사에 나선 허브밸리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8년에 걸친 사업이 막바지에 다 달은 상황으로 운봉읍 바래봉길 211번지 일원 72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자생식물환경공원, 허브테마파크, 체험농원을 포함한 허브농업지구가 조성된 350억의 예산이 투입된 남원시의 역점 사업이다. 현재 이곳에는 민간투자자의 투자도 유치되었고, 관광호텔 건설도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착공에 들어간 상황으로 의원들은 사업이 마무리 과정에 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연납신청 고지서 발송

임실군은 지역 내 등록된 5,434대의 차량에 1억4,500여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73건의 연납신청 고지서도 일괄 발송했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자동차 배기량에 기준으로 차량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일괄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기술개발사업(R&D)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고창 북분자주 '빙탄복' 미국 수출

고창 북분자주가 미국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군은 배상면 주가고창LB(대표 안재식)가 북분자주 브랜드 '빙탄복'의 미국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했다고 14일 전했다.

미국 주류 전문 수입업체인 KP Global, Inc를 통해 LA지역으로 수출되는 이번 물량은 빙탄복 1,000박스, 300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배상면주가 고창LB의 대표제품인 '빙탄복'은 ' 시원하게 복을 삼키다'라는 뜻으로 국내 최초 탄산 과일주다.

자연발효로 빛은 북분자술을 저온에서 장기 숙성하고 탄산을 가미해 만든 술로 상큼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알콜도수 7도 정도의 순한 맛으로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배상면주가고창LB 안재식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고창북분자주를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시장을 개척해 고창 북분자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배상면주가고창LB의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 성과가 기쁘고 계속해서 수출이 이뤄져 지역 북분자 생산능력과 업체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행정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상면주가고창LB 안재식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고창북분자주를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시장을 개척해 고창 북분자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배상면주가고창LB의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 성과가 기쁘고 계속해서 수출이 이뤄져 지역 북분자 생산능력과 업체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행정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복지수급자 연간조사 시행

순창군은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17년 복지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

이번 연간조사 계획 대상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11개 복지급여 수급자 8,260가구 10,627명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득·재산 변동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정확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24개 기관 6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하며, 관련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조사를 진행하며 정기 확인조사는 4~6월, 10~12월 연2회 추진한다. 상시근로소득 50%이상 증감, 취득세 납부자 등 수급자 자격 변동이 큰 자료를 중심으로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순창=이영원 기자